

# 경대학보 629호에 실린 한 여학우의 글을 읽어....

우선 경대학보 629호에 실린 한 여학우의 글을 읽어 14대 총여학생회가  
방문하여 인도적인 마음을 차운 걸 염두합니다. 지난 9월 10일  
총여학생회 해설석을 하면서 청진호재으로 부총장실에 공개토론회를 가졌고  
방문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에 부총장실을 찾았습니다.  
여학생 문화원은 함께 청기애에 들어갔습니다.

청기애에 들어가기 전에 여학생 문화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학우들과 함께  
풀 wspóln고 세심하게 험의하지 못한 점들은 반성합니다.

계속적으로, 학우들이 여학생 문화원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지 못한 점,  
여학생 문화원의 부적합은 명확하게 알려내지 못한 점들로 인해서  
학우들 속에서 외부의 평론들이 있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인이 뉴스 면 소장국이 사용자와의 봇제를 위해서 여학생 문화원을 설립해  
⑨ ~~총장국과 학생부가 청탁을 여학우들을 위해서 여학생 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것인가요?

왜 사용자에 끌려온 여학생 문화원이 청탁되었는지를 학우여러분이  
꼼꼼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소장국이 청탁을 여학생 문화원을  
여학우들을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설립하자 했더면 학우들이  
여학생 문화원에 대한 저항적인 이해야 함께 저작·간접적원  
대학으로 여학우들의 삶을 높여 설립 했을 것입니다.

소장국이 특별적으로  
서수질 빙기 위해 ~~비밀리에~~ ~~특별적으로~~ 운영하는  
세워놓은 하수아비 "여학생 문화원"

민족의 고유를 내려가며 버리고 민족의 고유를 그대로 사들여 억기 위해  
기억상을 헤구적인 애국정책들을 짜놓고 있으며 그것이 경기학관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습관은 대학총협의회에서 점수를 잘 빌기 위해 목적으로  
경기현상에 맞지도 않는 (수원의 학부제, 서울의 전교체 학제전형 등)  
종속언제들을 폐지하고 있으며 여학생 운동권 또한 대안없이  
버는 것입니다.

먼저, 자료수가 전문인이 아닙니다, 예술을 못벌어서 ~~부자~~  
여학생 운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적인  
문제이며 점수를 잘 빌기 위해 세워놓은 허수아비 여학생 운동권이  
아니라 여학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블라 저당적인  
힘있는 ~~한국~~부서로서 여학생 운동권 사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진정으로 여학우들을 위한 것이고 ~~부자적인 블라~~  
어려운 것이 ~~진정한~~ ~~한국~~ ~~부자적인~~ 여학우들의 문제인가를 다룬 한  
서각했으면 합니다.

여학생 운동권이 시장으로 여학우들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서의 여학우들의 상황을 살피에게 진정하고 그에 맞게 운동권이야  
할 것입니다.

###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운동권(??)

이 여학우가 저작했던 것처럼 분명히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운동권의  
자는 데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총여학생회는 90여학우의 차으로 세워진 저당적인 저치기구입니다.  
그러나 ~~습관~~ ~~한국~~ ~~부자적인~~ 이제 총여학생회의 역할들은

여학생 운동권이 하면되는 놀리를 대비지원 문제에서 부터  
교수님 사업을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에 책정되는 예산은 우리 등록금으로 지불되는 것이고,  
총여학생회 사용은 여학우들의 뜻을 듣지 않아 짜증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총여학생회의 예산이 그대로 여학생문화원에  
채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학생자치권 침해입니다.

여학생문화원은 여학우들의 복지, 사회진출,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등을 철저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자도교수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총여학생회장~~ 해정적인 힘과 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도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여대에 상주하고 실질적으로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학생수는  
자도교수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장~~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지는 것은  
우리는 자도교수와 여우는 것이 아니라 술집과 여우는 것이라는  
것은 ~~총여학생회장~~ 알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학생문화원의 미래 ~~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 현재 여학생문화원에서는 서정연이 일부 여가학회를 장악하고 ~~총여학생회장~~. 그리고 ~~여학우들이~~ ~~여학우들이~~ ~~(총여학생 2명 포함)~~ 여대의 학우들(총여학생 2명 (남1, 여1))이 수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영어학회와 학우들의 ~~제~~ 수임을 정리하고 막은 학우들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문화원에서 영어공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기 여학우들의 처지에서 어떠한 일부러 선차되어야 하는지를 ~~여학생문화원~~ 같이 연구하고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부과제로 여학생문화원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거나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여학생문화원의 여학우들의 ~~운영~~<sup>운영</sup> 기반에서 '총여  
총여학생회를 포함한 다른 이는 본래의 운영이 970여학우의 허락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의 글을 올려 주신 여학우의 의견 ~~들은~~  
~~한~~ 총여학생회에서 소중하게 받아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총여학생회와 여학생문화원에 대한 학우들의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 ~~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학우여러분들의  
성직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진정으로 총여학생회가 970여학우의 대중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